

한국의 책100 전시 전경

U-Book 시대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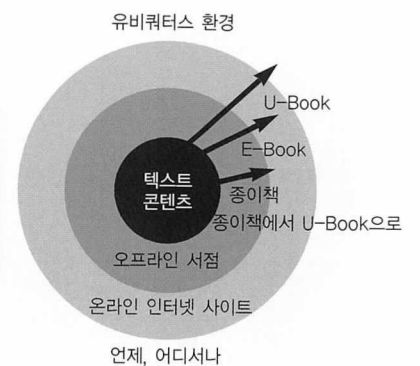
지난 10월23일 막을 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은 주빈국으로 참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함께 현재의 발전 동향에 대해 전세계에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인쇄·출판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독서 방식, 이에 따른 인쇄·출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 등에서 큰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열리는 나만의 책,
U-Book

주빈국관 행사 가운데 돋보인 이벤트 중 하나는 모바일폰을 통한 POD서비스

였다. 'U-Book'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주빈국관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현장에 준비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방문객이 이벤트 쿠폰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서 10종의 준비된 도서 가운데 원하는 책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간단한 메시지 또는 시(詩)구를 함께 출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즉, POD(Printing on Demand, 이 행사에서는 Publishing on Demand로 쓰였다)와 모바일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구현한 시스템이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문한 책이 불과 20여분 만에 제작된다는 것에 무척 놀라워했고, 자기 이름과 메시지가 적힌 자신만의 책을 받음으로써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림〉 U-Book 개념도



U-Book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의 책 100'

'한국의 책 100'은 이번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한국' 행사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프로젝트다. 한국에

기고 | U-Book의 가능성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외국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안내창구 역할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 24명이 참여한 '한국의 책 100 선정위원회'가 2004년부터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100종의 도서를 선정했다. 시, 소설, 사상·종교, 과학, 언어, 사회과학, 건축, 예술·문화, 아동도서, 만화 등 10개 분야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과 현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외의 일반 독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성도 고려됐다. 이렇게 선정된 도서들은 각 특성과 진출 대상 지역을 감안하여 영어 46종, 독어 22종, 불어 10종, 스페인어 8종, 중국어 6종, 일본어 8종 등 6개 언어로 번역, 출판됐다.

각 국가별 언어로 준비된 책들은 주빈국관 전시의 중심부에서 책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형태로 전시됐다. 한국의 거석 유적을 주된 모티브로 형상화한 미적인 구조물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종이책과, 그 콘텐츠를 가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독자를 책과 연결해 주는 유비쿼터스 텍스트(Ubiquitous

Text)로써 함께 전시된 것이다. 주빈국관 방문객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책을 주문한 후 주빈국관을 나설 때 그 책을 직접 받아볼 수 있었으며, POD로 인쇄되는 책에는 주문자가 원하는 문구나 개인의 이름이 책 표지에 인쇄됐다. 결국 하나의 콘텐츠가 출판사-인터넷-이동통신-POD를 이어주는 광범위한 U-Book 서비스와 연결되어 책의 주문 및 배달, 개인을 위한 맞춤 책 제작 등 서비스 확장의 연결 통로가 된 것이다.

U-Book의 기본 조건, 디지털 프린팅

본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이브테크놀러지스의 기획, SK네트웍스의 Océ 프린터, 비에스지의 프린팅솔루션, 한국GMP의 표지코팅, Tacho Plus의 제본기, 대호기계의 재단기 등을 포괄하는 POD관련 시스템 및 장비가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책 100권' 중 서비스에 적합한 책 20권이 선정되어 즉석에서 인쇄, 배포되었다. 이번 POD 서비스 행사에서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책 주문 접수와 동시에 컬러 출력이 이뤄지는 광경을 확인하며, U-Book 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출력을 위해 준비된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핵심 거점을 둔 Océ의 CPS900 Platinum 시스템 프린터였다. Océ는 유럽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IBM, Xerox와 함께 3대 메이저 프린터 벤더로 알려진 기업이다. Océ CPS900Platinum은 A4기준 풀 컬러로 30ppm의 속도로 출력할 수 있으며 Océ 고유의 Copy Press 방식을 도입, 출력 품질이 우수하다. 지난 10월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Business Day 동안에도 부스를 방문한 많은 기업참관인은 POD서비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핵심 부분인 프린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내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POD 전체 구성 시스템

그림 2~5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지연한 U-Book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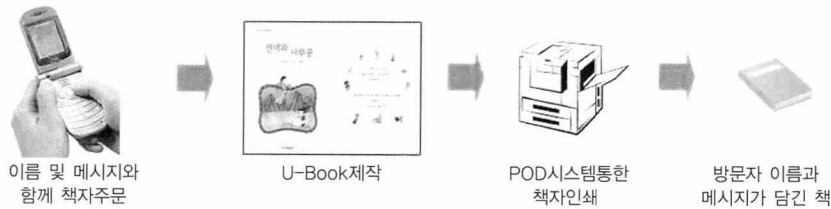
〈그림 2〉 U-Book 서비스 전체 구성도



〈그림3〉 모바일 U-Book 서비스 메뉴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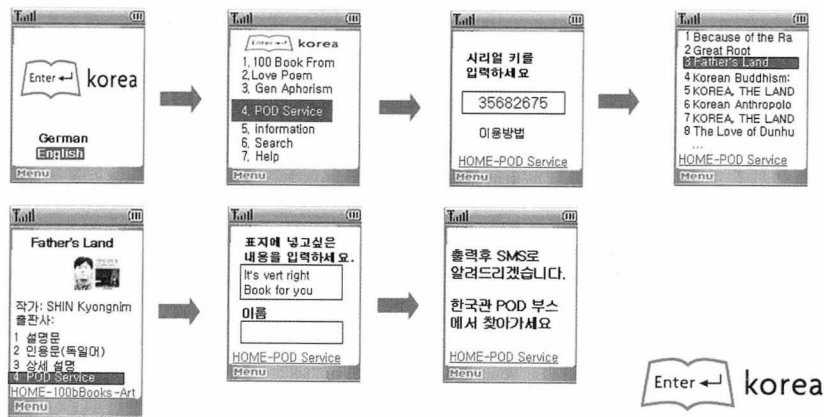
| | | | | | |
|----------------------|-----------------------|-------------------------|-------------------------|---------------------------------------|----------------------|
| Information | 100 Books From Korea | Love Poem | Zen Aphorism | POD Service | Search |
| Guest of Honor KOREA | Searching & Selecting | Searching & Selecting | Searching & Selecting | Searching & Selecting | 100 Books From Korea |
| Main Program | Reading | Reading | Reading | Reading | Love Poem |
| Event Calender | | Presenting | Presenting | Entering Coupon Serial Number | Zen Aphorism |
| | | Diary with My Love Poem | Diary with My Love Poem | Send My Name & Message | |
| | | | | On-Demand Book With My Name & Message | |

〈그림4〉 POD U-Book 서비스 흐름도



〈그림5〉 POD U-Book 서비스 흐름도

**Guest of Honor ; EnterKorea
U-Book Mobile Service
Contact Hot Code Key 77977**



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모색 및 추후 협의를 위한 상담도 이어졌다. Océ 제품은 국내에서는 몇 개 업체를 통해 일부 프린터에 국한되어 보급이 이뤄져 기존의 다른 벤더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SK네트웍스를 주축으로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Océ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번 국제도서전의 'U-Book' 행사를 통해 국내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출판 및 인쇄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자책을
유선과 모바일에서 통합관리**

U-Book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모든 전자책(e-Book)을 유선과 모바일에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사용자는 한 번의 전자책 구매로 PC는

물론 휴대폰과 PDA 등에서 동일한 전자책을 열람, 관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기존 PC에서 모바일 단말기까지 확대된 전자출판물 유통과 이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도 모바일 단말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 범주에 속하지만, U-Book은 더 나아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책을 소개하는 정보를 보고 주문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e-Book 보다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서비스다. 또한 U-Book은 종이책을 인쇄하여 각종 운송 수단을 통해 국내외에 유통시키던 기존의 인쇄, 유통 시스템을 넘어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을 제안한다. 디지털 파일을 온라인상 곳곳의 POD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통 비용 없이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종이책을 주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종이책 유통의 혁명적인 기술'로 불릴 수 있다. 가격 면에서도 독자들은 전자책보다 저렴한 독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PC와 휴대폰 등 각 단말기마다 별도로 전자책을 구매해야 했으나 U-Book은 한 번의 구매로 모든 단말기에서 전자책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이책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

전자책의 발달과 함께 일각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시장이 엄청나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U-Book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종이로 만든 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이책은 가장 대표적인 출판 매체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종이를 이용하는 기존의 대량 생산 및 유통 방식은 U-Book의 도래를 맞이하며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어갈 것임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POD를 기반으로 하는 U-Book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U-Book은 기존 전자책의 제약을 극복하고 독서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전자책 시장의 대중화 기반을 다지고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U-Book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가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독자)가 접근해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유비쿼터스 텍스트, 그리고 출판사-인터넷-이동통신-POD를 이어주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로서 종이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e-Book을 뛰어넘는 다소 도전적인 시도이자 실험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김광호 · SK네트웍스 시스템사업본부)